

BAZAAR

ART

BAZAAR

ART



80

### 전시 보러 떠나는 여정

지방 미술관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요즘, 최근 2~3년 사이 존재감이 확실해진 대구미술관과 부산시립미술관에서 3~4월까지 대형 전시가 계속될 예정이다. 대구미술관에서는 프랑스 최초의 사립미술기관인 매그재단과 대구미술관이 '모더니티라는 주제 아래 양 기관의 소장품 중 78명 작가의 대표작 1백44점을 소개하는 <모던 라이프>가 진행 중이다. 남프랑스 생폴드방스에 위치한 아름다운 매그재단미술관에서 온 미로, 사갈, 자코메티 등과 곽인식, 이우환, 유영국 등 치열한 예술적 실험을 통해 20세기 미술사의 진보를 가능하도록 한 명작들이 호응하며 영감 넘치는 정신의 산책을 독려한다. 3월 27일까지.

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이우환과 그 친구들 시리즈 세 번째 전시로, 2021년 7월에 타개한 '삶과 죽음의 작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<크리스티앙 볼탕스키: 4.4>전이 열리고 있다. 이번 전시는 1997년 국립현대미술관 개인전 이후 진행되는 작가의 국내 최대 회고전이 작가의 첫 유고전으로, 전시 제목의 '4.4'는 인생을 4단계(생로병사)로 나눌 때 마지막 생의 단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작가가 직접 선택한 타이틀이다. 이번 전시는 볼탕스키가 타계하기 전 작품 선정, 공간 구성, 전시 디자인까지 완성하였고, 그의 예술적 행로를 확인할 수 있는 초기작에서 최근작까지 총 43점의 작품으로 구성된다. 3월 27일까지.

2018년까지만 해도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 전국 1위였던 울산이 드디어 시민의 열망이었던 미술관을 건립했다. 지난 1월 초 개관한 울산시립미술관은 개관 2주 만에 입장객이 3만 명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원을 받고 있다. 현재 미술관에서는 생태적 감수성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개관전 <포스트 네이처, 미디어체원전>을 포함해 백남준의 대형 작품 <거북>을 포함한 디지털아트 작품이 주를 이룬 소장품전 <찬란한 날들> 등이 열리고 있다. 4월 10일까지.



1 히토 슈타이일, <이것이 미래다(This is the Future)>, 2019, 비계 구조, LED 패널, 다중 채널 비디오 루프, 움직임은 텍스트, 울산시립미술관의 <포스트 네이처> 출품작, 2 크리스티앙 볼탕스키, <황혼(Crépuscule)>, 2015(2021년 재제작), 친구, 가브리엘리, 작가 소장, 부산시립미술관의 <크리스티앙 볼탕스키: 4.4> 출품작, 3 호안 미로, <Naissance du Jour I>, 1964, 캔버스에 유화, 146x114cm, Collection of Maeht Foundation, 대구미술관의 <모던 라이프> 출품작, 4 페르낭 레제, <La partie de Campagne>, 1954, 캔버스에 유화, 245x301cm, Collection of Maeht Foundation, 대구미술관의 <모던 라이프> 출품작, 5 <크리스티앙 볼탕스키: 4.4> 전시 전경.



BAZAA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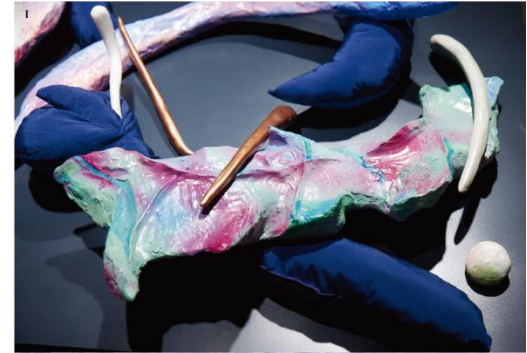
ART

## 나와 너, 우리의 세계

개성 있는 작가들의 협업과 실험정신 충만한 전시 공간의 만남을 통해 동시대적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2인전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. 휘슬과 P21에서는 공동 기획으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남과 성시경 작가의 2인전 <투투 TwoTu>를 선보인다. 에폭시, 리텍스 등 산업 재료의 물성에 현대적인 이미지와 오브제를 접합하는 현남과 캔버스의 사각 프레임이 내부의 조형과 맞는 상호 관계를 의식하고 이를 회화의 조형 조건으로 삼아온 성시경의 작품을 각 공간의 특성에 호응하는 모습으로 연출할 예정이다.

디스위켄드룸에서는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정이지, 조호리 작가가 <너무 가깝지 않은 계절(가제)>이라는 기획 아래 날씨와 계절, 온도 및 대기 등 객관적인 수치로 잡히면서도 자극히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것들을 두 작가만의 작업 스타일로 각각 풀어낸 작품을 함께 소개한다.

실린더에서는 오는 4월, 과거 작업실을 함께 썼던 우한나, 정수정 작가의 2인전 <Feather>를 선보인다. 전시는 '초자연적인 조랑말들의 경쾌한 긴장'이라는 뜻을 가진 작업실 'PPLT'에서 두 작가가 세계관의 교집합이 되었던 실화와 신화에 대해 갖은 상상을 덧붙여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거인과 용이라는 상상의 존재를 회화, 설치, 조각 등으로 풀어낸 협업 작업 및 개인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.



1 우한나, <Sleepy Peace>, 2021, photo: 김상태, 작가 제공.  
2 현남, <공작(제비나비)>, 2021, 에폭시 수지, 시멘트, 안료, 비스무트, 아랍레 모형, 해골 미니어처, 폴리스티렌, 70×24×56cm, 작가 제공.